



## 상품성 개선 '2020년형 스팅어' 출시

### 기아차

전방충돌방지, 차로이탈방지 등 첨단기술 기본적용, 안전성 높여

기아자동차가 8일 안전성과 상품성 대폭 개선한 2020년형 스팅어를 출시했다.

2020년형 스팅어는 전방충돌방지(FCA, 차량·보행자감지),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등을 포함한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를 2.0T/2.2D 플래티넘 모델부터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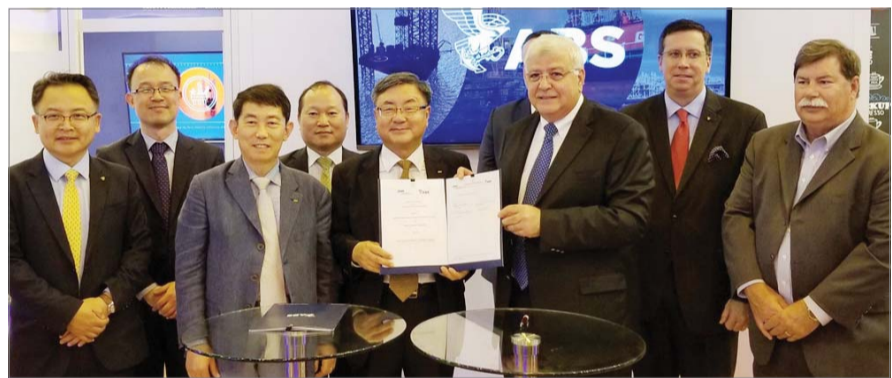
3.3T GT 모델에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따라 전조등 각도를 좌우로 조절하는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DBL) ▲스포츠 모드 연동 운전석 볼스터 조절장치를 신규 적용해 안전성과 다이내믹한 주행 감성을 강화했다.

2020년형 스팅어는 전 모델 윈드실드 차음글라스 등을 탑재해 정숙성을 개선했으며, 공기정화모드를 신규 적용해 사용 편의를 강화했다. 또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3.3T GT 모델에만 적용됐던 다크레드팩 인테리어를 2.0T/2.2D 플래티넘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T 플래티넘 모델에서 19인치 휠을 선택하거나 3.3T GT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나 올 시즌 타이어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2020년형 스팅어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 2.0T 프라임 3524만원, 2.0T 플래티넘 3868만원, 3.3T 4982만원 ▲디젤 모델 프라임라이트 3740만원, 프라임 3868만원, 플래티넘 4211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대우조선해양, 美ABS와 차세대 기술 전략적 협력 MOU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5대 선급 중 하나인 미국선급협회(ABS)와 손잡고 '미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 해양기술전시회인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19'에서 ABS와 '미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 관련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기본합의 체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 (오른쪽 다섯번째), ABS 토니 나시프 최고운영책임자 (오른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5대 선급 중 하나인 미국선급협회(ABS)와 손잡고 '미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 해양기술전시회인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19'에서 ABS와 '미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 관련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기본합의 체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 (오른쪽 다섯번째), ABS 토니 나시프 최고운영책임자 (오른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T '위기 대응' 안전컨트롤타워 신설

네트워크 직속 '인프라운영 혁신실' 초대 실장에 이철규 대표이사 선임



설부터 5G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모든 네트워크 영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KT가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장애, 인프라 장애 등 모든 네트워크 영역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

KT는 네트워크부문 직속으로 인프라운영혁신실(인프라실)을 신설하고, 초대 실장(전무)에 이철규 KT 서브마린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철규 실장은 1986년 KT로 입사해 네트워크품질담당, 네트워크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한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다.

인프라실은 선로, 장비, 건물 등 사업분야별로 각각 관리하던 안전과 시설관리 영역을 통합해 맨홀 등 기초 통신 시

KT는 이번 조직 신설로 기본적인 통신 장애 대응은 물론, 5G 시대 인프라 장애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맨홀·통신구·통신주 등 시설물도 전수 정비한다.

아울러 네트워크운용본부, 네트워크 연구기술지원단, 융합기술원에서 각각 관리하던 네트워크 투자·운용 계획을 바꿔 네트워크와 관련된 전략, 이행, 관리, 개선 등 전체 과정을 인프라실로 일원화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한국타이어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 변경

## '기술 혁신기업'으로 새 출발

그룹 통합브랜드체계 구축 위해 지주사·주요계열사 사명 변경

정체성 '기술 혁신그룹' 재정의 주주 가치제고, 미래 경쟁력 확보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한국타이어그룹은 8일 그룹 통합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의 사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명 변경 대상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타이어㈜', '㈜아트라스비엑스', '㈜엠케이테크놀로지', '㈜엠프론티어', '㈜대화산기', '에이치케이이오토모티브㈜' 등이다.

우선 그룹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된다. 기업 브랜드인 '한국(Hankook)'의 정체성을 기술 기반의 혁신 그룹으로 재정의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인지도를 넓혀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주)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Hankook Tire & Technology)'로 사명을 변경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는 미래 지향적 혁신 기술 확보에 집중해 오토모티브 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 변화시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계열사인 (주)아트라스비엑스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Hankook AtlasBX)'로 사명이 변경되며 (주)엠케이테크놀로지는 '한국프리티전웍스

기존 회사명	신규 회사명
Hankook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 HANKOOK THE WORLDWIDE COMPANY	Hankook Technology Group
Hankook driving emotion	Hankook Tire & Technology
ATLASBX THE POWER COMPANY	Hankook AtlasBX
DAE'HWA ENGINEERING & MACHINERY	Hankook Engineering Works
emFrontier	Hankook Networks
MK TECHNOLOGY	Hankook Precision Works
MODEL SOLUTION	Hankook Car & Life
MODEL SOLUTION	MODEL SOLUTION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 사명 로고 이미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Precision Works)로, (주)프론티어는 '한국네트웍스(Hankook Networks)'로 사명이 변경된다.

또 (주)대화산기의 사명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Hankook Engineering Works)'로 바뀌며 에이치케이이오토모티브(주)는 '한국카앤라이프(주)(Hankook Car & Life)'로 변경된다.

반면 '모델솔루션(주)(Model Solution)'은 고유의 사업 영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사명 변경에서 제외했다. 모델솔루션(주)은 IT 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의 최첨

단 기술력이 접목되는 신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목업, 가공, 간이금형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제작·지원하는 회사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미래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을 지속하게 해 줄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SK텔레콤

## 모바일 에지 컴퓨팅 세계적 우수성 인정

SK텔레콤은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19(Leading Lights Awards)'에서 자사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이 '가장 혁신적인 에지 컴퓨팅 전략'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리딩 라이트 어워드는 통신 분야 전문 매체 라이트 리딩이 매년 통신 분야별 최고의 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MEC'는 5G 시대 '데이터 통신의 지름길'로 데이터 통신 지연 시간을 최대 60% 감소시킨다. 통상 고객의 5G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최소 4단계 과정을 거쳤다. 5G기지국이나 교환기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MEC' 기술은 전송 구간을 최대 2단계로 줄인다.

SK텔레콤은 협력사들이 보다 쉽게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MEC 플랫폼을 외부에 개방했다. 협력사들은 SK텔레콤 MEC 플랫폼과 연동해 초저지연 특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MEC 기술은 극한의 응답 속도를 요구하는 AR·VR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자율주행, 차량관제, 실시간 생방송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김나인 기자



고양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감도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 고양케이월드 등과 MOU

## 고양시에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짓는다

현대오일뱅크는 고양시에 최소 6600㎡, 최대 3만3000㎡ 규모의 복합에너지스테이션 건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일 고양케이월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내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울산에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수소, 전기 등 모든 수송용 연료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의 문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현대오일뱅크는 지속적으로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을 늘려 정부의 수소경제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또

한 이번 고양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옥상 녹화 등 친환경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할 예정이다.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ESS(Energy Storage System) 및 재생에너지 산업, 산학연 R&D(연구개발), 자동차 전시, 튜닝, 교통안전 체험 등을 아우르는 자동차 문화 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고양시는 총 40만㎡에 이르는 이 단지를 국내 최고의 자동차 메카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도 단지 조성 취지에 따라 주유·충전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세차·정비 타운을 만들어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연우 기자